

코스피, 3,460선 뚫었다"이틀 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

외국인·기관, 장 초반 순매도에서 오후 들어 '사자' 전환

1년 1개월 만에 '8만전자' 회복...코스닥도 연고점 달성

코스피가 18일 미국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재개에 대한 기대감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내 시장(국장) 부양 의지를 상승재료로 삼아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11거래일 연속 상승 후 전날 하루 숨을 골랐던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47.90포인트(1.40%) 오른 3,461.30에 거래를 마쳤다.지난 16일 기록한 종가 기준 직전 최고치인 3,449.62는 물론 장중 최고점(3,452.50)도 뛰어넘는 수치다.

지수는 전장 대비 9.37포인트(0.57%) 오른 3,432.77로 출발해 장 초반에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점차 빠르게 오름폭을 키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천838억원, 4천 303억원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장 초반 순매도세를 보였으나 오후 들어 '사자'로 돌아섰다.

반면 개인은 나 홀로 7천816억원 순매도했다.코스피200선

물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75억원, 2천331억원 순매수했다. 개인은 2천983억원 매도 우위였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7.7원 오른 1,387.8원을 나타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1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에서 4.00~4.25%로 인하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회의 후 회견에서 고용시장의 하강 위험이 증가한 점을 반영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히면서도 현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 "경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인하 결정을 '위험관리 인하'(risk management) 성격으로 규정했다.파월 의장의 발언을 매파(통화긴축 선호)적으로 해석한 뉴욕증시는 극도의 널뛰기 장세를 보인 끝에 혼조로 마감했다.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60.42포인트(0.57%) 오른 46,018.3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6.41포인트(0.10%) 내린 6,600.3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72.63포인트(0.33%) 내린 22,261.33에 각각 마감했다.

국내 증시는 우려보다는 기대감에 무게를 실으며 상승 출발한 후 강세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이 국내 주식시장 부양 의지를 강조한 것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증권사 임원들을 만나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 누가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라고 언급하며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길도록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2.94% 오른 8만 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이날 1년 1개월 만에 '8만전자'를 회복했다.

SK하이닉스는 5.85% 뚀 35만 3천원에 장을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 LG에너지솔루션(1.29%), 삼성바이오로직스(0.88%), 현대차(1.16%)는 올랐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0.68%), KB금융(-0.76%), HD현대중공업(-1.28%)은 내렸다.업종별로는 화학(1.37%), 전기·전자(3.35%), 의료·정밀기기(1.37%), 유통(0.98%), 증권(2.20%) 등은 상승했고, 금속(-1.57%), 건설(-0.95%), 운송·창고(-0.52%) 등은 하락했다.

대신증권이경민 연구원은 "장 초반 이벤트 소화 후 차익 실현에 나섰던 외국인과 기관이 오후 장에서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코스피 사상 최고치 랠리가 재개됐다"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이어지며 주가 상승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11.58포인트(1.37%) 오른 857.11에 장을 마감해 지난 15일 연고점(852.96)을 넘어섰다. 지수는 전장 대비 6.41포인트(0.76%) 오른 851.94로 시작해 강세를 이어갔다.

이송원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새만금 해수 유통 확대 조력발전 추진’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사업자로, 세계 최대 규모(254MW) 시화호 조력발전

건설·운영 경험을 통한 수질개선 및 재생에너지 선도 사례 등 공유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장 윤석대)는 9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만금 해수 유통 확대와 연계한 조력발전 추진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조력발전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주요 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새만금 사업은 해수 유통을 통한 새만금도 수질개선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번 토론회는 안호영 국회의원, 박희승 국회의원, 신영대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이성윤 국회의원, 이원택 국회의원, 이준석 국회의원, 한병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전기신문이 공동 주관했으며, 국무조정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한국농어촌공사,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최한 안호영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조력발전은 수질 개선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중 하나"라며, "오늘 토론회가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총 3건의 전문가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시화호 조력발전 성과와 조력 확대 가능성’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박진순 박사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가동 이후 환경변화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입증됐으며, 조력발전 확대를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지지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호의 수질 현황과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전북대학교 광동희

교수는 “새만금호 수질 및 수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해수 유입량 확대가 필요하며, 수문 증설과 조력발전이 해수 확산 및 순환흐름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 전복발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력발전과 새만금호 관리수위 현실화’를 발표한 전북대학교 오창환 명예교수는 “새만금 방조제의 건설 이후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었으며, 조력발전을 통한 해수 상시 유통으로 새만금 생태계를 살리고 전북 경제의 이익을 최대화해야 된다”라고 제언했다.

이영진 기자

한국전력, 美 원전시장 진출 발판 마련

美 원자력 컨퍼런스 참여기업과 협력방안 논의, 美 원전시장 진출 의지 표명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글로벌 원전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기업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미국 원전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한전은 9월 8일(월)부터 11일(목)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원자력 에너지 컨퍼런스&엑스포(NECX 2025 Nuclear Energy Conference & Expo : 핵에너지기술, 정책, 규제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미 컨퍼런스

)에 참가하여 미국 원전시장 진출 의지를 표명하고, 현지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미국 원자력 학회(ANS)와 원자력협회(NEI)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美전력회사, 설계·시공사, 美규제기관, 아마존 등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참여해 미국 원전 정책과 신규 원전시장 전망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한전은 현지 주요 개발사인

TNC(The Nuclear Company)를 비롯해 대형 전력회사 등과 연이어 면담을 갖고, 신규 원전사업 개발·건설·운영·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네트워크를 확대했다. 주최측인 NEI 관계자는 “2050년까지 원전을 4배 확대하는 미국 정부의 목표 달성에 있어 한전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엑스포 참석에 이어, 한전은 인근 회의장에서 9월 11일(목)부터 12일(금)까지 웨스트하우스와 기술교류 워크숍을 공동 개최해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원전사업 협력방안과 상호 경험을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확대되는 글로벌 원전시장에 대응하고 韓-美 원전동맹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국내 건설사 등이 함께 참여해 팀 코리아의 미국 진출 기반을 다졌다.

이영진 기자

하나은행·이엑스피코리아, 종합 부동산·금융서비스 업무 협약 체결

부동산 매매·임대 금융상품부터 글로벌 투자자 맞춤 컨설팅까지 종합 지원

국내 금융권과 글로벌 부동산 중개기업 간 협력 사례...투자·금융 연계 확대 기대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글로벌 부동산 중개기업 eXp Realty의 한국법인인 이엑스피코리아 부동산중개법인(이하 손잡고 국내외 부동산 중개업무 및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부동산 매매 및 임대 관련 금융상품 제공, 글로벌 투자자 대상 맞춤형 컨설팅 등 종합적인 금융·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해외 투자자와 국내 손님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 필요한 외화 송금, 세무 컨설팅 등의 금융 지원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



다.

이엑스피코리아 부동산중개법인(이하 eXp Realty)의 한국 법인으로, 세계 30여 개국에 걸친 부동산 중개망을 활용해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를 돕게 되며, 하나은행은 국내의 손님의 부동산 관련 금융 수요에 보다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송원 기자

하이트진로, 추석 맞아 ‘테라 싱글몰트 에디션 선물세트’ 출시

355ml 캔 8개 테라 싱글몰트와 전용잔(425ml) 1개로 구성

원료에 대한 진정성을 담아 호주 태즈메이니아 청정 맥아 100% 사용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치소비 트렌드에 맞춘 '테라 싱글몰트 에디션 선물세트'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선물세트는 355ml 캔 8개와 전용잔(425ml) 1개로 구성해 명절 선물의 품격을 더했다. 최근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소비 패

턴이 강화되면서 유기농, 무첨가 등 프리미엄 먹거리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으며, 하이트진로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매년 단 한 번 한정 출시되는 '테라 싱글몰트 에디션'을 선물세트로 선보여 청정의 가치를 극대화했다.

테라가 강조하는 '정정함'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원료 선택

과 생산 과정 전반에 투영된 핵심 가치다.

'테라 싱글몰트 에디션'은 호주 태즈메이니아 섬에서 자란 청정 맥아만을 100% 사용한 국내 라거 최초의 싱글몰트 맥주다. 섬의 40% 이상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세계적인 청정 지역에서 재배된 보리를 원료로 삼아, 한정판 맥주로서 희소성과 진정성을 동시에 갖췄다.

또한 태즈메이니아산 단일 품종 'ELLA 홉'을 더해 부드럽고 향긋한 꽃 향을 완성했다.

특히, 지난 8월 테라는 국내 맥주 최초로 세계적 인증기관 'NON-GMO PROJECT'로부터 4년 연속 인증을 획득, 유전자 변형이 없는 본연 그대로의 맥아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유전자 변형이 없는 본연 그대로의 맥아를 원료로 사용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

테라 싱글몰트 에디션 선물세

트는 전국 대형마트에서 판매 예정이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전무는 "최근 명절 선물에서도 환경, 건강, 지속가능성 등 자신이 믿는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강화되고 있다"며 "원료에 대한 진정성과 청정 가치에 대한 브랜드 철학을 담은 테라 싱글몰트 에디션 선물세트를 통해 소중한 분들과 특별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테라는 다양한 친환경 활동, 사회공헌, 청정 캠페인을 통해 다방면에서 청정의 가치를 실천 중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소비자에게 청정한 웃음을 전하고자 출시되었던 '테라 X 스마일'을 시작으로 ESG 활동의 일환인 'SAVE the Green' 친환경 프로젝트를 펼친 바 있다. 또한 유망작가 김연수, 이조와 함께한 협업은 공익 메시지가 담긴 만큼 한정판 판매 수익금 일부를 숲 조성사업에 기부하는 등 진정한 가치 실천으로 소비자의 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 바 있다.

이현진 기자

TS 시흥드론교육센터, 미래 드론 인재 양성 앞장

올해 REACH 프로그램 시범 운영...드론 혁신 인재 150여 명 양성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이사장 최명진, 이하 KRAUV)과 함께 미래 드론 혁신 인재 양성에 앞장 서고 있다.

TS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재난 발생 시 실종자 구조·소방 등 특수임무 종사자들과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REACH'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드론 인재 150여 명을 양성했다고 18일 밝혔다.

TS는 각종 산업재난과 자연재해 대응 현장에서 드론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드론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소방 등 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들의 드론 운영 역량 강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TS는 AI(인공지능)와 드론 코

딩 등 최신 드론기술을 주제로 이론과 실습과정을 융합한 교육과정으로 교육 효과를 높였다.

특히 TS는 기존 이론 중심의 드론 교육을 넘어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산악사고 등 실종자 수색 및 구조 물품 배송 ▲해양 조난자 수색 및 튜브 투하 임무 ▲최신 드론 기체를 활용한 비행 실습 등 교육 내용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드론 꿈나무들이 쉽게 드론을 체험할 수 있도록 드론 조작 기초 실습, 드론 추구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드론 분야 진로 탐색을 지원하였다.

TS와 KRAUV는 지역 내 드론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드론 교육 인프라와 노하우를 공유하며 광목활만한 교육 성과

를 도출했다.

특히 부처간 벽을 허문 능동적인 협업을 통해 드론 재난 안전 분야 드론 활용 능력을 강화하고 드론 산업 생태계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한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TS는 2026년에도 ▲공공안전 강화(소방·해경 등 특수임무 기관과 협력해 재난 구조 및 산업안전 임무 지원) ▲교육 저변 확대(청소년·여성·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제공) ▲산업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드론 배송 등 생활 밀착형 실증 사업 확대 ▲드론 기술 실증과 산업 연계로 지역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채봉 기자